

■ 이석문 도교육감 임용시험 합격자 반복사태 공식 사과

# “지난 10년 임용상황 점검할 것”

## 7년치는 자체감사 계획... 객관성·신뢰성 확보 과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두 번이나 반복한 일에 대해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 지난 10년간 교육공무원 임용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고강도 내부 개혁’ 카드도 꺼내들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감사의 대부분을 자체 추진할 예정이어서 객관성, 신뢰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실수로 인해 일어난 건은 일이 발생했다”며 “도민과 당사자, 응시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교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드렸다”며 고개 숙였다. 교육감의 공개 사과는 도교육청이 임용시험 합격자를 처음 반복한지 18일 만의 일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과 지난 13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합격자를 바꿔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실기평가 점수와 선택 항목 1개 성적을 누락했다며 업무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지난 13일 서면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는 데 그쳐 사안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처음 합격자가 반복된 이후) 전면 재조사하고 감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서두르다 보니 (공식 사과 기회) 놓쳐

버렸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 있게 답변하는 게 나를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책으로 “관련 부서장의 책임에 따라 강도에 준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와 교육청의 특정 감사를 통해 지난 10년의 교육공무원 임용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이 밝힌 대로 도교육청은 감사 범위를 10년으로 정하고, 그동안 치러진 초등과 중등교사,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등 3개 영역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중

3년간만 제주도감사위가 맡고, 나머지 7년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우리가 놓친 실수이기 때문에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감사를 요청한 취지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내부 감사로 최근 불거진 의혹을 털어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선 ‘제 식구 잡싸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감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일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감사위원의 감사 인력이 제한돼 있고 연간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모든 기간에 대한 감사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교육청 특별 감사를 함께 진행해 임용시험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이석문 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최근 발생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반복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 공무원 직위해제

독자제보 750-2232

### 서귀포시 “행정 불신 초래”

제주지역 코로나19 제주 2번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실명 등이 담긴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25일자로 ‘직위해제’ 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서귀포시 간부회의 전, 실명 등 개인

정보가 포함 된 내부자료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외부로 유출했다. 이로인해 내부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도민사회 불안감을 가중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해당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더 빛나는 ‘헌혈’

2월 현재 2513명 헌혈 전년대비 참여자 많아 혈액 보유량도 6.3일분 혈액원 “기관과 기업 혈액 확보에 큰 힘돼”



25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도의원들이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행정 기관 등에서 단체로 헌혈에 동참하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주차장에는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헌혈 버스가 자리 잡았다. 버스 주위로 제주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이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한 직원은 강풍으로 인해 제법 곳은 날씨임에도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가 버스에 올랐으며, 시간이 좀 흐르자 헌혈을 마친 그는 뿌듯한 얼굴로 업무를 보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다.

김태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도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불안한 심리로 인해 헌혈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도의회가 도민들과 항상 함께 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모범을 보임으로써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2월(25일)까지 헌혈에 동참한 인원은 개인 1854명, 단체 65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헌혈에 동참한 인원은 개인 1500여명, 단체 500여명으로, 이 기간 설 연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해 5일분 이하로 내려갈 뻔한 제주지역 혈액 보유량은 현재 6.3일분으로 다소 회복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이다. 5일 미만일 때 모범을 보임으로써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 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한때 혈액 보유량이 줄어 걱정했으나 언론 등을 통해 많이 홍보해주셔서 행정 기관과 개인 참여자 등이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고 있다”며 “감염 우려로 인해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여행 기록,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으니 헌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오는 28일까지 ‘JDC 사랑의 헌혈캠페인’ 주간으로 정하고 헌혈에 동참하고 있으며 금주까지 제주서부소방서, 국립기상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세계유산본부, 국제학교 등의 단체헌혈도 예정돼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제주지검 “코로나19 허위신고 등 엄정 대처”

### 관련범죄 대책반 운영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방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같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한 ‘제주지검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는 한편 대응팀 산하에 ‘관련 범죄

대책반’과 ‘청사관리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운 범죄는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거부행위, 입원·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이상민기자

## 저소득가구 긴급지원 제주시 8억여원 확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가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주소득원자 또는 주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8억79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4인가구 월 123만원과 동절기에 한해 연료비 9만8000원을 지원하고, 갑작스런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의료자원을 신청하면 회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및 적정성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가 해당된다. 이윤희기자

www.bonbonauto.co.kr

새봄, 프랑스 감성이 깃든  
고품격 푸조/시트로엥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PEUGEOT CITROËN

푸조 공식딜러  
**(주)봉봉오토모빌**

- 중문전시장 739-0533(서귀포시 일주서로 532)
- 제주전시장 743-5001(제주시 오일장중길 100)
- 서비스센터 743-5002

푸조/시트로엥 서귀포 중문 전시장  
영업딜러 모집(2명)

- 근무지: 푸조/시트로엥 서귀포 중문전시장
- 서귀포 중문 거주자 환영
- 접수 및 채용안내: jhdo21@naver.com  
010-9379-7701